정완영 시조 연구

주 강 식*

<目次>

Ⅰ. 들어가며
Ⅱ. 직관의 이미지화
Ⅲ. 여백의 미와 격조
Ⅳ. 동심적 상상과 즉물적 자연 교감
Ⅴ. 향토적 정서와 서정
Ⅵ. 맺음

Ⅰ. 들어가며

백수 정완영 시인이 문단에 등단한 것은 196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작품 「조국」이 당선되고 「현대문학」지에 추천되면서이다. 그의 나이 43세 때이다. 그의 연보에 의하면 1941년 시조 창작 관계로 일본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고 고향 김천에서 여석기, 김상갑 등과 「시인부락」 동인을 만들어 문학 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의 신춘문예 당선작 「조국」도 1948년에 쓴 것으로 되어 있어 일찍부터 문필과 시조 창작

* 부산교육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에 활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단에 등단은 그가 다소 늦었지만 시작 활동과 영향력은 상당하여 그의 위상은 많은 사람이 인정할만큼 정립되어갔다. 1969년 첫 시집에 이어 1972년 2번째 시집 「墨鷺圖」를 출간하였을 때는 '백수풍'이라는 바람이 일기도하였다.

뛰어난 시적 감성과 직관으로 이미지를 구사하며 시조의 가락과 묘미를 노련하게 구사하여 현대 시조의 진수를 높인 그의 작품 세계와 시조 미학을 고찰해 본다.

Ⅱ. 직관의 이미지화

정완영 시조는 뛰어난 직관을 감각적 이미지로 잘 표현하였다.

찾아가 반만 본 산 돌아오니 다 뵙디다
눈에는 낡았던 절 가슴에는 불입디다
뜨는 눈 감은 사이가 浮沈인가 봅디다

섬은 서해 서녘 가뭇 가는 돛배였소
산슾은 높이 걸린 바람 받는 돛이었소
절이야 애당초 그 배에 실린 돛이었다오
「전등사」전문

풍경도 낙산사 풍경은 태를 지어 우는 걸까
솔바람 닿을제면 난향으로 흔들리고
먼 동해 썰물 소리엔 방생하는 풍경 소리
「낙산사 풍경 소리」전문

오대산 월정사 사슴뿔을 닮은 석탑
뿔 끝에 감긴 구름 구름 끝에 도는 하늘

꺾으면 진달래 같은 피도 흘러나겠네
「월정사 석탑」전문

직관과 통찰력이 뛰어나야 참신성과 심오성이 높은 시를 쓸 수 있다. '찾아가 반만 본 산 돌아오니 다 뵈는 산' '눈에는 낡았던 절 가슴에는 불'로 떠오르는 상상은 뛰어난 직관과 통찰력을 말해준다. 섬을 '돛배' 산숲을 '돛'으로 본 것도 예사롭지 않는 직관이다. 헤즐리트(Hazlitt)는 이성의 언어가 과학이고 이성은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는 것이라면 상상은 자연적 대상 그 자체보다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에 비쳐진 시인의 인상에 충실하는 것이 문학적 언어, 상상의 언어라고 하였다. 「전등사」는 물질적 고정물인 절에서 '가슴 속 불' 바다에 떠 있는 '돛배'로 직관하며 전환적 표현을 하였다. 이 움직임의 구심으로 '부침'이란 시어에 특별히 눈을 줄 필요가 있다. '뜨는 눈 감은 사이'라는 부침의 의미는 현실과 이상, 찰나와 영원을 전등사(傳燈寺) 이미지로 연결하며 묘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태를 지어 우는 낙산사 풍경에서 '난향'과' '방생하는 풍경 소리'를 상상하고 오대산 월정사 탑을 보고 '사슴 뿔'을 연상하며 '꺾으면 진달래 같은 피'도 흘러나오겠다고 상상을 펼쳤다. 대상을 새롭게 보고 참신하게 표현하였다.

양재동 가는 길에 한 오백년 늙은 고목
빈 하늘 짚고 서서 알몸으로 아뢰나니
삭풍도 몸에 걸치면 가사 아니오리까

「알몸으로 아뢰나니」전문

한 그루 고목을 성자의 모습으로 직관하고 감각적 실체로 표상하였다. 따지고 보면 한 그루 나무와 고승대덕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이 작품에서는 이 양자가 일체화되어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융합되어 있다.

쓰르라미 매운 울음이 다 울고 간 극락산 위
내 고향 하늘빛은 열무김치 서러운 맛
지금도 등 뒤에 걸려 사윌 줄을 모르네

가난도 길이 들면 양처럼 어질더라
어머님 곱게 나순 물레줄에 피가 감겨
청산 속 감감히 물혀 등불처럼 가신 사랑

뿌리고 거두어도 가시잖는 억만 시름
고래등같은 집도 다락같은 소도 없이
아버님 탄식을 위해 먼 들녘은 비었더라

빙그르르 돌고 보면 인생은 회전목마
한 목청 뻐꾸기에 고개 돌린 외 사슴아
내 죽어 내 묻힐 땅이 구름 밖에 저문다

「고향 생각」1, 5, 6, 7수

쓰르라미 울음이 맵다는 생각, 내 고향 하늘빛이 서러운 열무김치의 맛으로 오는 표현은 예사스런 발상이 아니다. 고향을 가슴에 지니되 사무침으로 지니지 않고서는 이런 감동을 떠올리지 못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향이 있다. 더러는 떠나고자 하고, 더러는 영원히 거기 묻히고자 하고 더러는 죽어서라도 돌아오고자 한다. 백수 시인의 고향은 가난과 서러움이 있는 고향이지만 그래도 '열무김치 서러운 맛'처럼 잊을 수 없

는 그립고 서러운 정한의 대상이며 영원히 육신을 묻고 싶은 땅이다.

Ⅲ. 여백의 미와 격조

시조는 긴축과 여백, 격조와 가락이 좋아야 한다. 긴축과 여백이 상반되는 요소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백은 비어있는 것 같지만 없음이 아니고 모자람이 아니다. 동양화의 미적 가치인 격조는 내적 충만을 최소로 압축시키고 끌어 당겨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내충외간의 격조요 여백이고 운치이다. 백수 시조의 미학의 또 하나는 여백과 격조의 뛰어남이다. 그는 시조 표현의 원리를 시어와 이어 사이를 산만큼한 의미 공간을 두고 장과 장 사이를 바다만큼한 의미 공간을 두라는 말을 어떤 만남에서 들은 적이 있다.

청산은 생각 위에 생각을 포개두고
세월의 먼 발치로 흘려보낸 낙화유수
한 가람 창창한 뜻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사모곡」셋째 수

한 줄 글에 산처럼 생각 위에 생각을 포개는 엄청난 사념을 세월의 먼 발치로 낙화유수처럼 흘려보내는 여유와 운치가 대단하다. 사물화와 개념화의 긴장 관계가 바람직하게 유지되며 절제된 감정이 이미지에 의해 깔끔하게 형상화되었다. 그 한가람의 창창한 뜻을 깨닫는 경지 또한 격을 딛고 선 경지이리라.

저만치 벗어놓은 안경 이만치에 눈 감은 나
그 사이 흐르는 것은 세월인가 강물인가

삿대로 강류를 찌르면 秋水共長 天一色을
「한 세월 짐 풀어놓고」

벗어 놓은 안경과 나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1미터 내외이겠지만 태어나서 성장하고 한창일 때는 필요 없던 안경이 이제는 안경을 끼어야 하는 몸과 그 세월 사이는 몇 십년의 시간 공간이 있다. 그 세월을 삿대로 찔러보는 노 시인의 여백과 운치가 추일공장 천일색으로 격조와 운치가 있다. 그의 시선이 닿는 물상들이 무엇이든 언어의 화살이 되어 서정의 심금에 이미지로 꽂힌다.

옛날에는 칼보다 더 푸른 난을 내가 심었더니
이제는 깨워도 잠 깊은 너 돌이나 만져본다
천지간 어여쁜 물소리 새소리를 만져본다.

젊었을 때의 혈기와 예기도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다져지고 생각의 여백이 더 생기면서 돌이 되어가는 여유와 그 속에 알게 모르게 달라지는 격을 짐작케 한다. 난초의 격과 운치를 감상하는 격도 대단한데 그 위에 돌의 미학, 돌의 경지까지 닿은 생각과 삶의 미학은 대단한 경지의 격과 여유이다. 여유 있는 생각과 표현의 미적 거리가 여백과 격조를 담고 있다.

Ⅳ. 동심적 상상과 즉물적 자연 교감

동심은 티 없이 맑은 마음이 순수하고 천진무구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받이들이는 마음이다. 이슬같이 맑은 마음이니 세상이 맑은 물에 비치듯 자연 그대로 비치게 된다. 꾸밈이 없고 복잡하지 않고 맑고 밝고 아름답

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대상을 즉아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즉물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프리즈 쿵켈 (Friz Kunkel)은 자아가 환경에 대하는 태도를 즉물적(卽物的)과 즉아적(卽我的)으로 나누었다.[1] 즉물적 작용은 자아가 객체에 봉사하고 즉아적 작용은 자아에 봉사한다고 하였다. 즉아성의 특성은 자극성에 있어서 외계에 갈등, 대립을 많이 느끼게 된다. 즉물적 특성은 공화적 감수성에 있기 때문에 대상과 화합과 조화를 잘 이루며 대상을 대할 때 갈등, 대립보다는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게 된다.

① 지지 배배 지지 배배 봄 하늘을 불러 내린다
지지 배배 지지 배배 보리 목을 뽑아 올린다
발머리 복숭아 꽃도 귀가 멍멍 먹는다
「종달이가 울어싸면」

② 높이 뜨면 높이 뜨면 푸른 하늘 끔이 실리고
낮게 날면 낮게 날면 고추밭에 무지개 선다
나두야 고추잠자리 날개 하나 달았으면
「고추잠자리」

③ 돌 한 개 던져 볼까 아니야 그만 둘래
바람 한번 불러 볼까 아니야 그만 둘래
창포꽃 포오란 생각이 5월 못물을 열고 섰다
「 창포꽃 못물」

1978년 간행한 그의 동시집 「꽃 가지를 흔들듯이」에 실린 작품들이다. 대상을 바라보는 눈이 천진무구하고 순수하며 꾸밈이 없다. 시어의 선택과 표현도 자연스럽고 어려움이 없다. 동심에서 대상을 바라보며 동심을

1) Fritz Kunkel, Einfuhrung in die characterkande aup individual, 이인모 문체론(이우출판사, 1968) p.154 재인용.

아주 잘 담았다. 우리나라의 동시집을 보면 동심이 담겨 있지 않거나 억지로 꾸며 넣은 동시들이 많은데 정시인의 동시조는 동심을 잘 담아 모범을 보이는 좋은 동시조요 동시들이다.

정완영 동시조의 시적 대상은 주로 자연물이다. 자연물 중에서도 꽃, 해와 달, 산, 바람, 구름, 봄 등이다. 자연을 맑고 밝게 긍정적으로 보며 자연과의 합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며 관찰적 자연에서 창조적 자연으로 의미를 생성시킨다.

달은 누가 그 이름을 달이라고 지어주었나
달 중에도 한국의 달 잘도 익은 한가위의 달
'달'하고 불러만 보아도 단물 잘잘 흐르는 달
「달」전문

달아논 태극기 보고 아침 해가 인사하고
마을길 마을길들이 서로 만나 인사하고
산새알 물새알 같은 아이들이 모입니다
「산골 학교」

정완영의 동시조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많이 써서 묘사와 리듬의 재미를 만들고 있다.

담 넘어도 두런두런
울 넘어도 두런두런

골목 열고 서서
엄마들도 두런두런 (봄이 오는 소리 초, 중장)

새 달력 속에서는

까작까작 까치 소리

새 달력 속에서는
돌돌 골목 소리(설날 아침)

비 오는 학교 길은
혼자 우산 받고 가자

봄 소식 보슬보슬
콧노래도 보슬보슬 (봄비 초,중장)

표현법은 반복과 대조, 대비와 점층법을 많이 썼다.

동네서 제일 작은 집
분이네 오막살이

동네서 제일 큰 나무
분이네 오막살이

밤 사이
활짝 펴올라
대궐보다 덩그렇다(분이네 살구나무)

산이 높아 골이 깊고
골이 깊어 절은 사는데

실꾸리 감았다 풀 듯
겨울 가면 봄은 또 오고(직지사 그 산 물 초,중장)

Ⅴ. 향토적 정서와 서정

정완영 시조의 시적 대상은 향토적 자연과 인생의 정한이 주를 이룬다.

우리집 석류나무는
함부로 꽃 안피었다

오뉴월 타작 마당
새로 먹인 도리깨로

한 마당 땡볕을
튕겨야 불꽃처럼 터져났다

우리집 석류나무는
함부로는 열매 안했다

할아버지 사서삼경
별자리를 侍奉해야

떨어진 서리하늘에
가슴 빠개 짖히었다
「우리집 석류나무」

이 시조의 현실을 만들어 주고 있는 역동적인 비유 능력은 '우리집 석류나무'라는 시제를 전제로 시작된다. '우리집 석류나무'에서 '우리' 속에는 '우리'는 나를 찾는 자아와 우리 의식이 짙게 담겨있다. 그러한 정서적 바탕 위에<할아버지-나>라고 하는 선분 관계가 뚜렷해 있다. '오뉴월 타작 마당' '새로 먹인 도리깨' '할아버지 사서삼경' 등의 시어는 향토적 정서를 담아 한껏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사흘와 계시다가 말없이 돌아가시는
아버님 모시 두루막 빛 바랜 흰 자락이
웬 일로 제 가슴속에 눈물로만 스밉니까

어스름 짙어오는 아버님 여백 위에
꽃으로 비쳐드릴 제 마음 없아오매
생각은 무지개 되어 고향길을 덮습니다

손 내오면 잡혀질 듯한 어릴제 시절이온데
할아버님 닮아가는 아버님의 모습 뒤에
저 또한 그 날 그 때의 아버님을 닮습니다
「부자상」 전문

이 작품은 아들을 찾아온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오붓한 정과 정을 나눈 뒤 아쉬움을 갖고 헤어지는 부자상을 담은 향수를 표상하였다.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이 각 장마다 시각적 이미지로 잘 표현되고 있다. '사흘와 계시다가 말없이 돌아가시는 아버지' '아버님 모시두루막 빛바랜 흰 자락'에서 느껴지는 끈끈한 부자간의 정, 고향에 대한 향수가 짙게 담겨 있다. 아버지에 대한 동경은 낭만적 측면에서 보면 회고적 공간에 자리한 인륜적 도리와 휴매니티의 발로라 하겠다.

어린 봄 양지받이
부끄리던 진달래꽃
연분홍 곱다 못해
다홍으로 물을 쏟고
새벽닭 홰울음 치듯
만산 중에 울더라
「진달래」전문

진달래는 우리나라 산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으며 삶과 연관되어 있어 감회를 갖게 하는 꽃이다. 한국적 정서가 많이 담긴 토향적인 꽃이라 할 수 있다. 이른 봄을 '어린 봄'으로 다소곳한 모습을 '부끄러움'으로 색깔의 강렬함을 '물을 쏟음'으로 생생하고 선명한 색을 '새벽 닭 홰울음'으로 감각화하여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상하였다.

쓰르라미 매운 울음 다 흘러간 즉락산 위
내 고향 하늘 빛은 열무김치 서러운 맛
지금도 등 뒤에 절려 사월 줄을 모르네

동구 밖 큰 장성 십리벌을 다스리고
푸수풀 깊은 골에 시절 잊은 물레방아
추풍령 드리운 낙조에 한 폭 그림이던 곳

소년은 풀빛을 끌고 세월 속을 갔건마는
버들피리 언덕 위에 두고 온 마음 하나
올해도 차마 못 잊어 봄을 울고 갔더란다

오솔길 갑사댕기 서러워도 달은 뜨네
꽃가마 울고 넘은 서낭당 제 첩이면
생각다 생각다 못해 물이 들던 도라지꽃

가난도 길이 들면 양처럼 어질더라
어머님 곱게 나순 물레 줄에 피가 감겨
청산 속 감감히 묻혀 들불처럼 가신 사랑

뿌리고 거두어도 가시잖는 억만 시름
고래등같은 집도 다락같은 소도 없이
아버님 탄식을 위해 먼 들녘은 비었더라

빙그르르 돌고 보면 인생은 회전목마
한 목청 빼꾸기에 고개 돌린 외사슴아
내 죽어 내 묻힐 땅이 구름 밖에 머문다
「고향 생각」 전문

'내 고향 하늘 빛은 열무김치 서러운 맛'과 '오솔길 갑사댕기 서러워도 달은 뜨네'에서 '어머님 곱게 나순 물레 줄' '꽃가마 울고 넘던 서낭당' 등은 향토적 정경과 서정이 짙게 배어 있다. 쓰르라미 울음이 맵다는 감각, 내 고향 하늘빛이 서러운 열무김치 맛에서 오는 감각은 우리의 맛과 미의식과 상념과 정한이 담긴 것이다. 고향은 가슴속에 사무치게 지니고 있다. 고향의 이미지는 부모님의 이미지와 겹치며 사무친 관념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고향은 추억과 그리움의 대상이고 또 낙원으로 의식을 일깨워주고 그것이 가족으로 심상이 이어지고 있다.

밝혀 든 촛불입니까
황황히 타는 이 시냇물

어머님 옛날엔 이 물이
은하에도 가 닿았고

밤이면 물레도 자으며
삭신마저 앓았지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관념적 이미지의 표상이다. 어머니에 대한 향수의 정은 어버이에 대한 인(仁)으로 귀결된다. 어머니가 있으므로 해서 '열무김치 서러운 맛의 고향'이 '손 닿자 애절히 우는 서러운 가얏고'와 민족적 한의 정서와 맥락이 닿는다.

Ⅵ. 맺음

현대시조 창작에 한 모범을 보인 백수 정완영의 시조 세계를 살펴 보았다. 가람, 노산, 이호우, 초정이 시조의 한 정상을 보여주었지만 백수는 또 다른 시조의 맛과 경지를 개척하였다. 백수 시조의 미학과 묘미는

첫째, 뛰어난 직관력과 상상력으로 대상의 이미지를 포착하여 감각적인 이미지화를 잘 하였다. 이점이 백수 시조의 가장 두드러진 점으로 들 수 있다.

둘째, 격조와 가락이 뛰어났다. 모든 예술이 격조와 좋은 가락을 필요로 하지만 시조의 전통적인 묘미는 격조와 가락이 좋아야 하는 것이다.

셋째, 백수 시조는 동심적 발상과 표현이 많다. 실제로 동시조를 쓰고 동시조집을 내기도하였다. 동심은 모든 예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며 특히 시심은 동심의 바탕이 시적 심상의 좋은 질료가 된다. 원숙한 경지의 작품은 동심에 접근함을 보인다.

넷째, 백수 시조의 시적 대상과 표상은 자연과 인생의 정한이며 이것은 향토적 정서가 주조를 이룬다. 시의 본래적 모습은 서정이다. 향토적 서정은 시조의 전통성과 시조의 묘미를 더욱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한 질료가 된다.

〈참고 문헌〉

강대석, 미학의 이론과 그 변천(서광사, 1986)
김대행, 한국시의 전통 연구(개문사, 1980)
이성재, 정완영 시조연구 (한국교원대학 학위 논문, 1998)
임종찬, 시조문학의 본질(대방출판사,1986)
정완영 시조 작품집

주강식, 현대시조의 양상 연구(동아대학교, 1990)
가에탕 피콩, 문학 미학 서설, 유재호 역(홍성사, 1985)
H. 마르쿠제, 문학과 사회연구소 역, 미학의 차원(청하,1980)